

##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을 위하여

---

- 주 제 :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
- 장 소 : 국립국어연구원 중1층 세미나실
- 사 회 : 김세중(金世中,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장)
- 참석자 : **이호영**(李豪榮,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민현식\***(閔賢植,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상규**(李相揆,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경희**(朴慶姬, KBS 아나운서)  
**엄민용**(嚴敏鎔, 굿데이신문 기자)  
**안상순**(安庠淳, 금성출판사 사전실장)



---

\* 민현식 교수의 토론문은 앞에 전문(全文)을 게재하였기에 토론자의 발언에 실지 않았습니다.(편집자 주)

**김세중** : 최근 들어 그간의 표준어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비판과 반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경직된 표준어 정책으로 인해 겨레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방언이 위축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표준어로 인해 국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제약 받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데 따라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표준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호영** : 2~3년 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입시에 표준어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라는 면접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접위원으로 접한 학생들의 90% 정도가 표준어 규정을 일종의 규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표준어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대답에 충격을 받고 표준어 정책과 표준어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표준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표준어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의 국어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표준어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라고 하자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어 교사들조차 표준어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표준어 정책의 한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표준어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은 우선 사회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탈권위, 탈규제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모든 권위와 규제를 타파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준어를 무겁고 딱딱한 언어, 기득권층의 언어로 인식하고, 표준어 및 표준 발음법 규정은 언어생활을 제약하는 규제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 통신언어의 확산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표준어 파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볍고 직설적인 언어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방언들도 표준어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표준어가 지역 방언의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표준어가 위기에 처한 것은 표준어 정책의 경직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어’라는 용어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비표준적인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언중들에게 줌으로써 서울말 이외의 방언 사용자들이 언어생활에서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항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표준어 및 표준 발음법 규정이 언어 현실과 언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미 20~30대 서울 토박이들의 말에서 거의 사라진 모음의 장단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부담만 줄 뿐 아무런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시점이 기존의 표준어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새로운 표준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적기(適期)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표준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규정을 유연하고 포용성 있는 규정으로 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규정이 유연하고 포용성이 있어야 이 규정들을 언중들이 언어생활의 지침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을 예로 들면 현행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20~40대 서울 토박이들의 발음도 표준 발음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복수 표준 발음의 인정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규정을 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규정은 속성상 어느 정도 보수성을 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규범적이면 언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언중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표준말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만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규정의 개정에 대비해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몇 년 전부터 서울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출간되어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발음 표기가 매우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국어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에서 표준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교사를 임용할 때 표준어 구사 능력을 시험 성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염민용** : 국립국어연구원이 새롭고 참신한 표준어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저는 내심 깜짝 놀라면서도 그 놀람만큼 반가움 역시 큼니다. 물론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우

리 국어 발전에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표준어 규정은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언중이 늘 그렇게 쓰는 말에 방언 또는 속어라는 굴레를 씌워 그들의 편한 말글살이를 가로막기 일쑤입니다. 또 미흡한 규정, 부분적인 잣대로 말과 글 전체를 구속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말을 두고 사전마다 표제어가 다르게 오른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 어문자료연구부장이 제시한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은 두 손 들어 반길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말과 글을 다루는 교열 현장에서 바랐던 ‘규정의 완화나 현실성 반영’보다 지나치게 과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입말로 ‘~구요’가 널리 쓰인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다면 ‘그리고’를 ‘그리구’로, ‘그리고는’은 ‘그리구는’이나 ‘그리군’으로 쓰지 못할 까닭이 없어집니다. 또, ‘너도 나도 우리도’를 ‘너두 나두 우리두’로 쓰는 것을 막을 길 역시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입말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주변 환경, 교육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입말을 하나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쓰임을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허용할 경우 또 다른 혼란과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는 표준어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역시 표준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표준어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도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표준어 규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우리말’에 필요한 것이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국어정책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어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이루어진 지 고작 100년 남짓한 시점

에서, 그나마 뼈대를 갖춘 표준어 규정을 마련한 지 이제 십 수 년 만에 벌써 규정 폐기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엄밀히 따져 우리가 언제 번듯한 표준어 규정 한번 가져 보거나 했는가요? 지금의 표준어 규정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의 표준어 규정은 과거 혼탁했던 우리 말글의 쓰임을 일정한 틀로 정형화함으로써 언중의 말글살이를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의 건강한 성장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불편은 표준어 규정이 없던 예전의 혼란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밭의 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분명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 중 언중의 말 씹씹이와 충돌하는 부분이 몇몇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언중은 ‘까다롭다’와 ‘까탈스럽다’를 뚜렷이 구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표준어 규정은 ‘까다롭다’ 하나만 쓰도록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언중은 실망했을 때 ‘고개를 떨구는데’, 규정은 ‘고개를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품은 꿈에는 ‘나래’가 있지 ‘날개’는 없음을 규정은 알지 못합니다. 이 화창한 봄날, 언중은 ‘봄내음’에 취하거만, 규정은 ‘봄냄새’를 맡으라고 합니다. 말과 글은 살아 있는 생명체 같아서 어느 때에 태어나 한순간 혹은 오랫동안 자라다가 죽어 갑니다. 그 생성-성장-소멸의 텃밭은 언중의 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과 글의 주인 역시 언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중의 쓰임새와 동떨어진 규정은 제 구실을 할 수 없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표준어 규정은 좀더 언중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재 방언의 족쇄를 채워 놓은 말에 대해 좀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중이 널리 쓰는 말이라면 문법적 잣대를 떠나 나름의 생명을 불어넣고 서로 경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지나친 구속’이나 ‘지나친 방임’ 모두 우리말글을 죽이는 독약이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박경희** : 1988년에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 발음법이 마련되었을 때 철자대로만 읽을 것을 고집하는 글말 우위의 사고에서 입말의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마련된 점에 방송인들은 크게 환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에 들어 있는 것은 과거에는 표준 발음법이라는 규정조차 없었으니 분명 진일보한 것이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속 기호로서 공식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바뀌는 통시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에 이제 십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준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을 치러 낸 해로 그 이후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 분야의 기술 발전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일반 대중이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브로드캐스팅)에서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협송(내로캐스팅)에 이어 인터넷 방송을 뜻하는 웹 캐스팅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발전은 눈부십니다. 여기에 이즈음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동 통신과 방송이 융합한 DMB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제 방송은 자동차는 물론 휴대 전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신개념의 방송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송을 신에 비유한 학자도 있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는 신처럼 방송 역시도 늘 함께 하는 편재성(ubiquity)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매체의 영향력이 인쇄매체보다 방송매체가 앞서가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러나 현재도 상업 방송의 선정성의 폐해와 이에 수반되는 비속어와 은어의 범람, 인터넷 상에서 특정 계층만이 사용하는 통신언어의 문제점 등 방송 언어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많은 지

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칫 그 속에 담기는 메시지 내용 자체에 대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바른말 고운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표준어 규정을 보완해야 할 당위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컴퓨터에 의한 음성언어 인식 시스템이 필요해지면서 음성언어의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보 취득 수단 역시 인쇄매체보다 방송매체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방송 메시지의 전달은 음성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음성언어는 문자와 다른 음성표현에 있어 운율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없고 특히 방송언어는 일회성이라는 제약과 시간의 제약이라는 특수성을 갖기에 근본적으로 철자식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인에게 표준 발음법은 모범적인 규범으로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용례가 부족하고 음성언어의 특성을 간과해서 빠진 규정들입니다.

먼저 ‘음의 길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음의 장단음은 표준 억양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으로 음성 언어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용례가 충분치 않아 장단음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한자어의 용례 보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계(時計), 시:계(視界) / 건조(乾燥), 건:조(建造) 등 용례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리의 동화’와 관련된 제 20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라, 난로 등이 [실라], [날로] 등으로 발음되지만 이원론, 공권력 등은 [이원논], [공뀐력] 등으로 발음됩니다. 또, 외래어의 경우 발음의 혼선이 오는 것이 현실인데 온라인 [온나인], 인라인 스케이트 [인나인] 등으로 발음해야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는데, 외래어의 경우 용례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래어 발음의 용례가 제시되어야 하고, 외래어 발음법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 ‘사우나’ ‘선(sun)’ 등의 발음은 첫 음절의 경음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 ‘가스’ ‘담’의 경우도 문장 단위로 발화했을 때 자연스럽게 경음이 나는 현실 발음



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선릉[선능], 현인릉[현인능]의 발음도 위의 맥락에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강세(악센트)의 규정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의 억양을 좌우하는 강세에 대한 규정 자체가 빠져 있어 언중들 가운데 우리말에 강세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강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투리가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4음절의 단어에서 강세가 첫음절이 아닌 둘째나 셋째 음절에 두게 되면 사투리가 됩니다. 따라서 강세의 의미와 용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의’의 발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사 ‘의’의 발음은 [의]를 표준어로 하고 [예]를 허용하는 것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음성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효과’, ‘자장면’, ‘김밥’의 발음에 있어 평음과 경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하게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잘못된 경음(창꼬, 고까도로, 쪄주)의 용례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접두사 ‘수’의 발음 문제인데, 수놈, 수소의 경우[순놈] [수쏘]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상순** : 표준어는 간단히 정의하자면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입니다. 이 개념어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언어생활에서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보다 유독 인위성과 규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인위성은 자연 언어와 상치되어 작위적으로 느껴지는 특성을 말하고, 규범성은 표준어의 사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겨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먼저 인위성의 문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제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표준어를 소수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쇠말주의(瑣末主義)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수의 국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표준어 제정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는 언어 현실에 대한 충분한 실태 조사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준어 규범과 언어 현실의 괴리를 초래했다는 사실과, 전문가들의 직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 편견과 이념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표준어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쓰이는 상류층(혹은 교양 있는 계층)의 언어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는 반면에, 우리는 주로 어휘 층위에 초점이 맞춰져 그 내용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데에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쇠말주의(瑣末主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위성과 작위성이 너무 강해져 일반인은 물론 국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조차 국어사전을 일일이 찾아보기 전에는 표준어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준어의 규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별 의심 없이 표준어를 맞는 말, 비표준어를 틀리는 말로 여겨 왔습니다. 상식이 되다시피 한 이런 관념은 표준어 교육이 주입해 온 잘못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억압함으로써 어려서부터 내면화한 말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도록 간섭하고 검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교과서나 방송 등에서 표준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약적 장면이나 사적 공간에서조차 표준어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표준어=맞는 말, 비표준어=틀린 말’이라는 등식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언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 소수의 언어일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지역민의 삶과 사유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지문이 묻어 있는 훌륭한 우리말 자원으로서 말을 ‘맞는 말/틀린 말’로 재단하는 이분법을 깨지 않는 한, 아름다운 우리말 자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은 제가 표준어에 대해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세중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가 제 생각과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좀 놀랍니다. 표준어 제정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준어에 대해 방어 논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논리에 섰다는 것이 뜻밖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반성은 필연인 듯싶습니다. 표준어의 여러 문제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명쾌하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방어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발표는 공통어로서 표준어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표준어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가 표준어 사정을 대신해야 하며 표준어 사정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속에는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주장을 두 개의 진술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째는 표준어는 분명히 필요하고, 둘째, 언어 실태 조사가 표준어 사정을 대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진술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즉 모순관계입니다. 표준어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사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실태 조사로 사정 작업을 대신하는 한 표준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 작업은 가치 판단이고, 실태 조사는 가치중립 내지 판단 불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표준어로 정하는 것은 판단을 필요로 하고 그 판단은 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태 조사는 그 어떤 판단도 아닙니다. 단지 객관적 사실의 제시일 뿐입니다. 가령, ‘만들다/땀들다/땡글다’와 같은 복수의 어형에 대해, ‘만들다’를 표준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정 작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실태 조사는 이 세 단어의 사용 빈도나 사용 계층 따위를 객관적 사실로서 알려 줄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대체로 현행 표준어에 대한 비판인 점으로 보아 아

무래도 둘째의 진술에 무게가 더 실려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만일 둘째의 진술을 확고히 하려면 첫째의 진술을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발표에서 표준어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표준어 개념은 무엇인가요? 규범적인 말로서의 표준어, 비표준어를 전제로 한 표준어를 포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만일 아니라면 그것은 기존의 표준어와 전혀 달라진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 4월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보면, ‘경성어를 표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표준 어문 규정 재정 원리와 동일한 중앙집권적 권위를 “동경=서울”로 실현시킨 것입니다. 80여 년 동안 표준어 규범에 의거한 학교 교육의 결과 서울 방언이 남한 전역의 공통어(common language)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가 아닌 교양인이 구사하는 말씨가 과연 표준어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울 지역 토박이가 아닌 지역 교양인들이 사용하는 말씨는 상호 통용이 가능한 공통어 내지 통용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급팽창한 “서울” 지역과 또 그 속에 유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양인”이라는 정체를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아마노테 선 안의 동경 말씨를 표준어로 규정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NHK방송 언어를 규범으로 하는 공통어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근대적인 표준어 사정원칙에 묶여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표준어를 사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언어 지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다수가 사용하는 공통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지표 조사를 전제하지 않고 표준어 사정 원칙에만 의존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언어 사용의 실태 조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1988년 이전과 그 이후 사이에 언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언어 변화가 일어났다면 변화에 맞추어 표준어를 다시 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한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세대차, 성차, 직업차를 보일 것이고 개인차마저 보일 것이어서 표준어를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태에 대한 파악 없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사용 실태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명자 퇴치라는 차원에서 표준어가 존중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퇴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⑧항에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방송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어의 지리적 기준을 수도지역인 “서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행정 수도를 이전하였을 경우와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어를 전제로 할 경우 “서울”지역 언어가 규범이 될 정당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표준어와 비표준어라는 2항적 분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에 들어 있는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일일이/하나하나, 장가가다/장가들다, 좀처럼/좀체, 중신/중매, 차차/차츰”과 같은 예들은 복수표준어로 제시된 것들인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공통어로 인정하는 동시에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억양과 문법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어를 표준어 어휘와 표준어 문법이라고 할 때에 표준어 어휘의 일부 어휘에 대한 분절음 형태만을 밝혀 주었을 뿐이고, 단어의 초분절적 특징, 문장의 억양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휘의 연결에 따른 문장의 문법성에 대

해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표준어를 단어 차원으로 한정시켰다고 봅니다. 표준어나 아니냐는 어떤 발화된 문장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에서는 단어 차원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갈랐을 뿐 문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형편입니다. 문장이 표준어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문법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어나 사어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어 사정원칙 제5항은(갓모/갈모, 굴젓/구젓, 말결/말겉, 물수란/물수락, 밀뜨리다/미뜨리다, 울력성당/위력성당)에서 /왼쪽은 표준어, 오른쪽 것을 비표준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비표준어로 규정된 것은 물론, 표준어로 규정된 것들조차 현실 언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말들입니다. 사어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지 문제가 되겠으나, 사어에 가까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표준어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또, 언어 현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놈/숫놈 (제7항), 수소/숫소 (제7항), 바람/바람 (제11항), 빌리다/빌다 (제6항)”의 예에서 /왼쪽이 표준어, 오른쪽이 비표준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표준어로 규정된 것이 현실 언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1장 제1항의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예들입니다. 어원이 분명한 방언의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어로 ‘떨어뜨리다’에 대응되는 동남방언으로 ‘널쭈다’라는 방언형이 있습니다. 방언형 ‘널쭈다’는 고어인 ‘느리(降)-+디(落)-+우(접사)-’의 복합동사의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15세기의 언어 전통을 화석처럼 간직하고 있는 ‘널쭈다’가 방언이기 때문에 비표준적인 단어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뜨시다’-‘차다’와 ‘덥다’-‘춥다’의 온도 계열어에서 ‘더운밥’이 방언에서는 ‘뜨신밥’으로 대응됩니다. 표준어인 ‘더운밥’이 체계적이라면 그 대립어는 ‘추운밥’이 되어야 할 것이나, 방언형인 ‘뜨신밥’의 대립어는 ‘찬밥’이 되어 표준어인 서울 방언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뜨신밥’이 방언이기 때문에 표준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공통어로 인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모국어의 규칙 위반인가요? 이문구, 황석영, 최명희 등 많은 작가들이 표준어와 방언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다양한 지역 방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움시레기’(모두, 전부)(최명희 혼불)와 같은 예나 또 백석의 시 작품에서도 ‘징기징기’(세수를 안 해서 불에 더러운 자국이 드문드문 있는 얼룩), ‘들쿠레하다’(좁 달고 구수하고 시원하다.)와 같은 표준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어쩌면 이와 같은 작가들은 손가락으로 바위에 모국어로 흠을 새기는 것처럼 한민족의 언어를 갈고 닦아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떤 사전에서도 이러한 민족 언어인 방언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표준어 정책을 규범 언어인 표준어만 있고 지역이나 계층의 방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를 버려온 언어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어는 공통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통어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로서 첫째, 한민족 방언 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어이고, 둘째, 한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어이며,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원 간(계층간)의 공통어라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민족 언어의 규범이 되고 또 잘 다듬어진 말인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공통어는 바로 “한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성”을 토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어 규정을 “한민족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의 실천적 운동으로 지역 방언의 보존과 이를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문정책의 틀을 수도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그 축을 옮길 때 진정으로 지역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화의 문화운동으로서 지방 언어를 존중하는 공통어 정책은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사회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일깨우는 본질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적 사회의 유산인 서울 중심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언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처음 서울에 가면 왠지 주눅이 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언어와 지리적 비친근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에 대한 현지조사와 더불어 전문어, 계급어 등 총체적인 한 민족의 언어 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민중들의 공동체 삶 속에 살아 있는 언어들에 오늘날 급속하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길쌈하던 아낙네들이 상용하던 말씨인 베틀의 부품명이나, 실을 짜는데 관련되는 용어와 같은 농촌어휘 뿐만 아니라 어촌어휘, 탄광촌어휘 등, 공동체 삶 속에 녹아 있는 말씨와 함께 문학작품(특히 소설이나 희곡 나아가서는 구비문학 자료인 민요, 판소리 등)이나 문헌자료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방언 어휘를 국가사업으로 전면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통일을 대비한 공통어 국어사전이 편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한 민중들의 언어 자산을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김세중** : 장시간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준어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浚碩>